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2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13.

발 의 자 : 김태년 · 김영배 · 김준형
김태선 · 권칠승 · 한민수
송기현 · 박홍배 · 정준호
염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,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종료되고 현재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,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,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

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8 신설).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의2에 제3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8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)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

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5조의5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,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, 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적립금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5조의8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)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5 조의5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,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 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 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, 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적립 금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